

보도시점 (지 면) 7. 31.(수) 조간
(인터넷) 7. 30.(화) 12:00

모태기금(펀드) 선정 4개월 만에 86% 결성 완료, 하반기 신속한 투자에 나선다

- '24년 중기부 모태기금(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 선정 43개 펀드 중 37개 펀드(86%)가 4개월 이내 결성되어 역대 최고 수준의 결성 실적 달성
- 나머지 6개 기금(펀드(14%))도 8월 내 결성되어, 총 9,000억원 이상의 벤처기금(펀드)이 하반기 본격 투자에 나설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024년 모태기금(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에 선정된 43개 기금(펀드) 중 86%인 37개 기금(펀드)이 선정 4개월 만에 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4개월 차 결성 완료율 86%는 모태기금(펀드) 출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23년 실적 대비 4배 이상 개선된 수치를 기록했다.

* 선정 후 4개월 이내 결성(%) : ('20) 68 → ('21) 48 → ('22) 26 → ('23) 18 → ('24) 86

나머지 6개 기금(펀드)도 최소 결성액의 90% 이상을 확보하여 8월 내 결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결성 완료된 7,945억원을 포함해 총 9,000억원 이상의 벤처기금(펀드)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이러한 조기 결성 성과는 올해 모태기금(펀드) 출자사업을 기금(펀드) 결성 가능성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 결과이다. 올해 중기부는 기금(펀드) 선정 평가에서 과거 민간 출자자 모집 실적을 반영하는 등 ‘기금(펀드) 결성 가능성’ 점수 비중을 대폭 상향한 바 있다.

또한 그간 모태기금(펀드) 자기금(펀드)은 결성시한을 최초 3개월로 정하면서, 그 이후 추가 6개월까지 기한 연장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올해 추가 2개월까지만 기한 연장을 허용하고, 연장 요건*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시장에 조기 결성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였다.

* 결성액의 70% 이상 모집 시 1개월 연장, 이후 90% 이상 모집 시 추가 1개월 연장

이와 같은 제도개선이 실제 자기금(펀드) 조기 결성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결성시한 3개월 만인 6월 말 기준으로도 20개의 기금(펀드)이 이미 결성 완료되어 7월부터 투자를 시작한 상황이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올해 모태기금(펀드) 출자사업은 벤처투자 시장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금(펀드) 결성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투자금이 빠르게 공급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속도로 결성된 모태기금(펀드) 자기금(펀드)이 하반기 벤처투자 시장의 회복세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투자과	책임자	과 장	이권재 (044-204-7710)
		담당자	사무관	박민지 (044-204-7712)
			주무관	진명철 (044-204-7716)
			전문위원	박철순 (044-204-7618)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